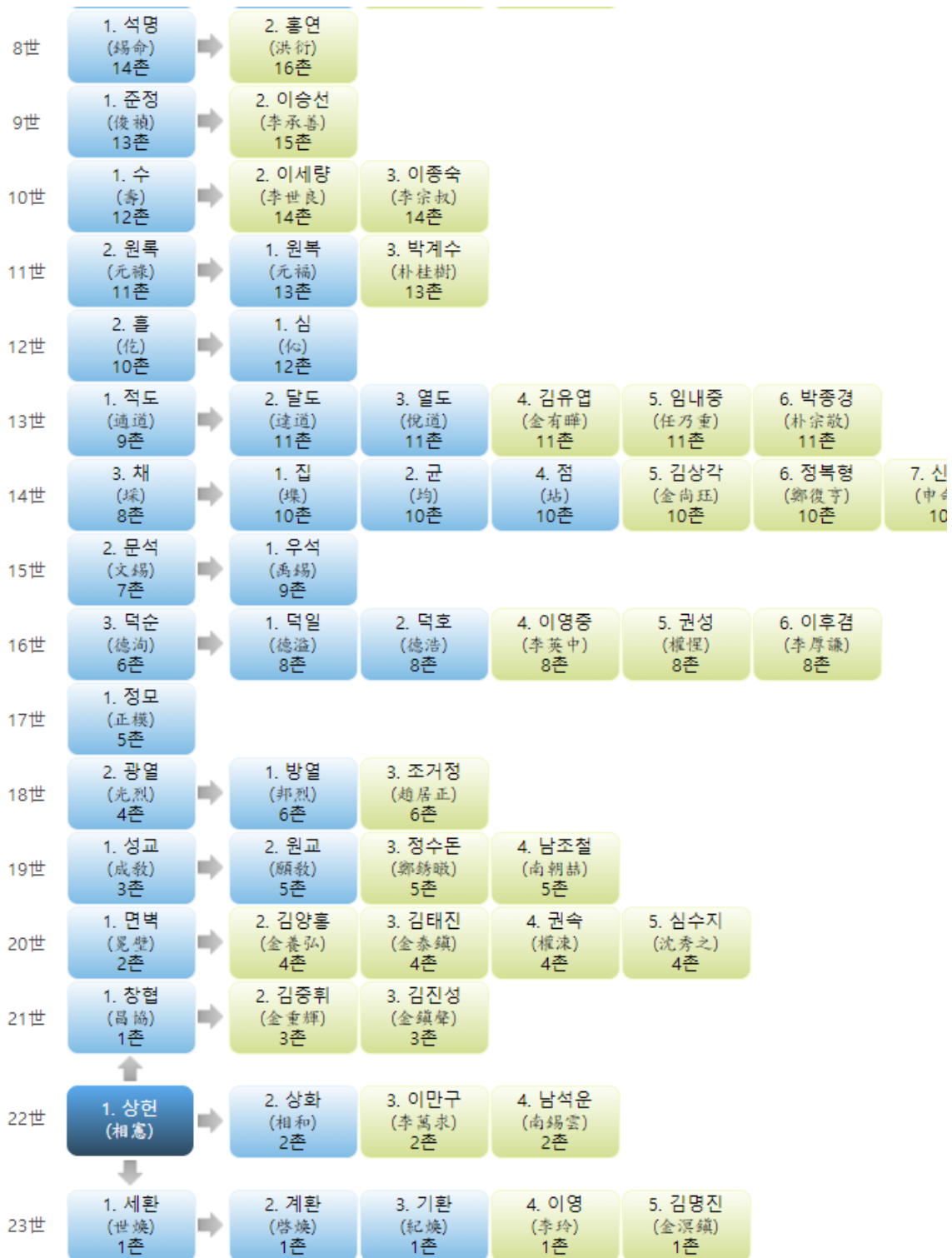


주정과유고(主靜窩遺稿) 신상헌(申相憲)

22世 상헌(相憲)

父 : 창협(昌協) 祖父 : 면벽(冕壁)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주정와유고(主靜窩遺稿)

서지

서지내용		
서명	주정와집 (主靜窩集)	
저자	성명	신상헌 (申相憲)
	자	
	호	주정와 (主靜窩)
판사항	新鉛活字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74	
권수	3	
책크기	18.5×27 cm	
사부분류	서간류	
기타사항		

해제

『주정와집』은 조선말기의 학자 신상헌(申相憲 ; 1842~1911)의 시문집이다. 신상헌의 자는 찬보(欒甫), 호는 모암(慕庵)·주정와(主靜窩),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창협(昌協)의 아들로 의성(義城)에서 살았다. 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소식을 듣고 여러 동지들과 모여 통곡하였다. 그리고 이내 이만도(李晩燾)가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로도해(東魯蹈海), 서산채미(西山採薇)’ 등의 문구로써 만사(輓詞)하여 뒤따르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며, 왜정으로부터 나오는 배급은 일절 받지 않았다. 그는 당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으로 둘째 아들 계환(啓煥)을 간도(間島)로 보내어 그 지역 풍토를 조사토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있었는데, 잡저(雜著)의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비롯하여 「성(誠)」·「존양성찰(存養省察)」등에서 선현들의 성리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였고,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1910년(융희 4)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여 이만도(李晩燾)가 자결하자 애통한 심정으로 ‘동로도해(東魯蹈海)’·‘서산채미(西山採薇)’의 어구로 만장(輓章: 죽은 이를 슬퍼하며 기리는 글)을 지었으며, 일제가 주는 배급은 모두 거절하였다. 일제를 벗어나려고 둘째 아들 신계환(申啓煥)에게 간도(間島) 지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둘째 아들은 신계환(申啓煥)이다.

시문집으로 3권 2책의 『주정와집(主靜窩集)』이 전하는데, 시(詩)·서(書) 외에 잡저(雜著)로 「인심도심(人心道心)」·「성(誠)」·「존양성찰(存養省察)」 등 주로 성리학과 관련된 저서를 남겼다.